

아카렌가 통신



2021년 10월 13일(수)부터 10월 15일(금)까지, 홋카이도청 국제과의 국제교류원들이 '아카렌가 통신' 취재를 위해 홋카이도의 조몬유적군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활동에 관한 김소현 국제교류원의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홋카이도의 조몬 유적

'조몬(縄文)'은 일본어로 '새끼줄 무늬'를 뜻하며, 해당 시대에 제작된 토기들에 새끼줄 무늬가 새겨진 것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조몬 유적은 일본에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홋카이도·기타도호쿠 조몬유적군(北海道·北東北の縄文遺跡群)이 올해 7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몬시대는 시대 구분상 중석기~신석기시대에 해당하며, 기원전 13,0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대략 12,000여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몬 유적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홋카이도의 지층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화산들이 분화했던 흔적이 나타나며 다루마에 화산, 우스 화산, 고마가타케 화산 등의 분화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두껍게 쌓인 화산재층이 완충 작용을 함으로써 조몬 유적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층에서는 조몬인들이 사용한 각종 도구들은 물론이며 조개껍질, 동물 뼈 등도 발굴되어 조몬인들의 식량 사정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다카사고 패총 (도야코초)

조몬인들의 주거환경

취락을 형성하여 공동생활을 하던 조몬인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사를 다녀온 조몬 유적들은 대부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오후네 유적 (하코다테시)

바다, 강 등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주로 취락이 형성되는 조몬 유적의 특징이 치토세 지역의 조몬 유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지금은 매립되어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치토세 지역의 기우스 유적이 형성되었던 자리 근방에 높이 존재했었고, 신치토세 공항 근처에서는 조개무덤 또한 발견된다는 점에서 치토세 지역의 조몬인들도 강과 바다의 영향을 받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리에 패총 수혈주거터 (도야코초)

조몬인들의 생활과 식량

발굴된 유적들을 통해 조몬인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도구를 만들고, 바다와 숲에서 식량을 얻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에·다카사고 패총이 위치한 도야코초에는 지금도 여름이 되면 돌고래들이 출몰하는데, 조몬시대에도 돌고래를 식량으로 삼았던 흔적이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막대기와 화살촉이 분리되는 작살을 활용하여 어로를 했다는 사실에서 조몬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비교적 기후가 따뜻했던 혼슈(本州)에서는 밤이나 도토리 등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몬인들에게 충치가 많았지만, 홋카이도에 거주하던 조몬인들은 사냥으로 잡은 동물들과 생선들을 주로 먹었던 덕분에 충치가 별로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몬시대의 흐름과 각 시기의 유적



조몬인들의 교류

홋카이도 조몬 유적에서는 당시 조몬인들이 혼슈(本州)와 활발한 교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니가타(新潟)산 비취로 제작된 장식품, 아키타(秋田)산 아스팔트 등 혼슈의 여러 지역에서 채취되는 자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홋카이도에는 서식하지 않던 멧돼지의 송곳니로 만들어진 장식품 등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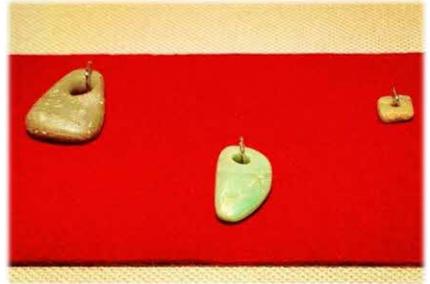
게다가 홋카이도 조몬인들에게는 발치 풍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카사고 패총에서 발굴된 인골 중에는 앞니가 발치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슈에서 이주를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당시에도 지역 간에 여러 물자나 동물들이 오갔을 뿐만 아니라 이주하여 정착을 하는 조몬인들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치토세 지역의 조몬 유적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당시에도 활발한 교역을 가능케 했던 지리적 특징입니다. 조몬인들은 시코츠호에서 치토세강으로, 또 바다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타고 나무배를 활용하여 교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치토세 지역에는 홋카이도의 현관인 '신치토세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데, 조몬시대에도 이 지역이 교류의 요충지였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멧돼지 상아로 만든 장식품 (이리에 패총)



▲비취 장식품 (가키노시마 유적)

조몬인들의 보금자리와 풍습

조몬인들은 수혈주거(움집)에 거주하였습니다. 깊고 커다란 원형 구멍이를 판 후, 나무로 기둥을 세운 뒤 나무껍질을 덮어 집을 지었습니다. 오후네 유적 등에는 조몬인들이 집을 지었던 주거터가 보존되어 있으며, 다테시에 위치한 기타코가네 패총공원에서도 복원된 움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화덕과 함께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납작한 돌(神棚)이 놓여있으며, 태반을 묻어두던 장소로 추정되는 구멍이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늘날에도 태반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조몬시대부터 존재해오던 풍습이 오랜 세월을 걸쳐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원된 수혈주거
(기타코가네 패총공원)



▲오후네 유적 수혈주거터
(주위의 구멍은 기둥을 세웠던 자리)



▲기우스 주제묘군
(1호 주제묘)

조몬인들의 취락에는 무덤도 존재합니다. 특히, 조개무덤과 모리츠치(취락 내에서 흙을 높게 쌓은 장소)에는 조몬인들이 먹고 남긴 조개 껍질과 동물의 뼈를 비롯하여 토기와 도구 등의 파편, 사람의 뼈까지도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쓰임을 다한 도구들과 생명을 잃은 동물, 죽은 사람의 영혼 등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을 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냥으로 곰 등을 잡은 후에 그 동물에 깃들어있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을 거행했던 아이누 민족의 풍속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몬인들의 무덤 형태는 조개무덤뿐만 아니라 원형 대접 모양의 주제묘(공동무덤)로도 나타납니다. 치토세 지역의 기우스 주제묘군이 대표적이며, 이 무덤들은 최초 발견되었을 당시 아이누 민족의 차시(성채, 제사 장소, 감시대 등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함) 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형태는 중심부에서 퍼낸 흙이 바깥쪽 둘레에 쌓여 원의 중심부와 둘레에 높이차가 생기게 된 것이며, 그 깊이가 5m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무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주제묘는 홋카이도 내에서도 이시카리 지방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무덤 유구(遺構)라고 합니다.

조몬인들의 손재주

약 12,000년에 걸친 조몬시대는 여섯 개의 시기로 분류되며, 조몬 토기 또한 시대별로 형태와 문양이 달라집니다. 기타도호쿠(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 지역과 홋카이도 남쪽지방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된 토기 형태에는 시대적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조몬 초기(早期)의 토기는 바닥이 뾰족하고 형태도 투박했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점차 섬세해져갈 뿐만 아니라 향아리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태 또한 다양하여, 요술램프 모양의 토기, 사슴 문양이 새겨진 토기 등 조몬인들의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도 존재합니다. 조몬토기는 한국의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와 닮아있기도 합니다.

조몬시대 토우들도 오늘날 상당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자밭에서 우연히 발견된 중공토우(속이 비어있는 토우)는 홋카이도의 유일한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갓쿠'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사람의 형태를 띤 토우들은 훼손된 상태로 발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몬인들이 건강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식을 거행하며 토우의 일부를 부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코다테시 조몬문화 교류센터에는 관련 유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서울 암사동 유적)



▲중공토우와 캐릭터 '갓쿠'



▲조몬 초기(早期)의 토기



▲우측 하단에 사슴 문양이 새겨진 토기



▲조몬 토기 형태의 변화

조몬 유적과 시사점



▲가키노시마 유적 수혈주거터 (하코다테시)
평범한 공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답사를 다녀온 홋카이도 조몬 유적들은 대부분이 인적 드문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조몬 유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적의 경우에는 현장 전문가의 설명이 없다면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한 언덕이나 구덩이로 보일 수 밖에 없을 법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세계유산과 더불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일본의 세계유산 보존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처럼, 보존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유적의 가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환경 정비를 실시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항지 하코다테

일본의 개항지 중 한 곳인 하코다테에서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이국적인 분위기의 건축물들은 물론, 일본 전통양식과 서양 건축양식이 혼재된 건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코다테는 '세계 3대 야경'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며, 봄에는 별모양 성곽 '고료카쿠'에 핀 벚꽃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고료카쿠 중심부에는 에도막부 말기에 에조치(홋카이도의 옛 지명)를 관리하기 위한 관청으로 사용된 '하코다테 봉행소'가 있습니다.

※ 삿포로와 하코다테를 잇는 신칸센은 2030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벚꽃 명소로도 인기 있는 하코다테 고료카쿠

미치노에키 (국도휴게소)

미치노에키는 도로 이용자의 쉼터이자 해당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야채나 과일, 가공품 등도 판매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시설 이름
주요 특산품
 지역 혹은 시설의 특징



화산을 관측할 수 있는 자료실



치토세 강에서 연어를 잡는 모습



지역 특산물들을 한눈에!



소베츠 정보관 아이
 사과, 옥수수 등
 우스산이 보이는 곳

사몬 파크 치토세
 연어 등
 가을 연어잡이 구경도 가능



아푸타
 배추, 로컬 맥주 등
 영국 군함 상륙지



야쿠모초 오카노에키
 가리비 가공품 등
 파노라마 파크

다테 역사의 숲
 쌀, 빙어 등
 대형 공원도 존재



빙어와 대구

취재 기간 중에 방문했던 조문유적 인근 지역의 휴게시설 정보입니다. 홋카이도에는 총 129개의 국도휴게소가 있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촌'과 '홋카이도 박물관'

'홋카이도 개척촌'은 홋카이도 개척기 역사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이곳의 정문은 과거에 존재했던 삿포로역을 축소하여 재현한 것으로, 이 문을 통과하면 마차 철도가 다니는 풍경이 펼쳐지며 당시의 마을과 농촌 등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메이지 초기의 '개척사 삿포로 본청사'를 재현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카렌가 청사'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두 건물은 건축양식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재건된 건물들 중에는 도료가 칠해진 것들도 있어서 그 당시, 해외에서 도료를 수입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내 건물들 안에는 마네킵과 도구들이 놓여있어 생활 모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촌(상단) / 홋카이도 박물관 (하단)

'홋카이도 박물관'에서는 대략 120만년 전부터 시작되는 홋카이도의 긴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홋카이도의 자연과 문화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홋카이도에 대해 알아보기 좋은 곳인 듯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맘모스 코끼리 화석, 홋카이도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속조몬 문화와 오호츠크 문화를 다룬 코너, 홋카이도의 지명들과 생활상 등을 직접 그려 넣어 만든 에도시대의 주사위 놀이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아이누 민족에 관한 코너에서는 스토리텔링 전시를 통해 아이누 민족은 현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친숙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바로가기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